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 빈번...“이동권 제약 우려”

### 주차난 심각지역 암체주차 빈발 年 1만5000건 적발...日 40건 꼴 표지위반·미반납도...납부율 저조 “제재강화 및 시민의식 제고해야”

주차난이 심각한 광주 도심 변화가의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제약과 관련한 제재 강화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 찾은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공유주차장. 상시 무료로 개방돼 있어 차량을 이용해 동명동 카페거리를 찾는 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만큼 이른 아침부터 차량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많은 운전자들이 한참 동안 주차장을 배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뒤이어 들어온 한 차량은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구석에 위치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운 뒤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이렇듯 매일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 도심 곳곳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최근 찾은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공유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다.

등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광주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표지 위반 등 포함)으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1만4073건 △2022년 1만4099건 △2023년 1만5768건에 달한다. 광주 시내에서

하루에만 40여건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셈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조 등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하거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체에 장애가 있더라도 이동하는 데 제약이 없다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대상이 아니다.

3년간 광주지역에서 부과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역시 △2021년 13억 7500여만원 △2022년 14억3700여만원 △2023년 17억6500여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더욱 축소되고 있지만, 위반사항이 적발된 5명 중 1명꼴로 과태료를 미납하고 ‘배짱’을 부리는 등 시민들의 의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광주 도심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며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동에는 제약이 없지만 장애

가 있기 때문에 주차했다’거나 ‘업무 등을 위해 잠깐 정차·물건을 적치했는데 적발돼 억울하다’고 항의하며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율은 대부분 자치구가 80% 수준에 머무는 등 저조한 형편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장애인 지원단체는 제재 및 관리 강화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성주 광주남부장애인자립센터장은 “시민들의 장애인 등 이동 약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각종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위법 여부를 떠나 사회적 약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배려와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후 관리 미비로 표지를 타인에게 빌려 주거나, 반납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도 잦다”며 “장애인 주차 표지 등에 대한 자치구의 관리와 더불어 주차구역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 광주 장차연, ‘4대 장애인 입법 연내 제정’ 촉구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전국 11개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4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다이인(Die-in)’ 행동을 진행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장애인권리법안을 연내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땅에 뿌리 내린 비장애 중심주의는 중증장애인을 억압하고 내몰았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의 주변적 위치로 쫓겨나지 않겠다”며 “장애인이 있어야 할 곳은 시설과 감옥 같은 집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애인 관련 법과 예산을 주장하며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중

증장애인은 자신의 무능함과 취약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장애인은 불평등한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과 시혜가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보통의 삶을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 자립 생활을 부정하려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막을 것이다. 뿌리 깊은 비장애인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을 해체하고 이 사회의 당당한 권리주체로서 바로 서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장애인권리보장법 △권리중심공공일자리특별법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요구하며 인도 위에 드러눕는 다이인 퍼포먼스를 벌였다.

윤준명 기자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이 4일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며 인도 위에 드러눕는 ‘다이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그린알로에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